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년 11월 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 31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0. 30.(수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 전력산업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 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신승일 사무관(044-203-5124) 박환준 사무관(044-203-5154)

한-중 에너지협의회 및 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최

- '19.10.31일 중국 장쑤성 진강시에서 열려 -

- 전력망 연계, 천연가스, 재생에너지, 수소 등 양국간 에너지분야 현안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성윤모)는 **10.31(목), 중국 진강(Zhenjiang) 크라운 플라자 호텔**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과 **제1차 한-중 발전기술 공동포럼 및 제2차 한-중 에너지협의회를 개최**한다고 밝혔음.

* (우리측)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, (중국측) 허양 국가에너지국장

< 1차 한중 발전기술 공동포럼 >

□ **제1차 한·중 발전기술 공동포럼**은 지난 **3월 산업부 장관 방중시** 중국 국가에너지국 장관과의 면담에서 **합의되어 처음 개최함.**

<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요>

○ (일시·장소) 10.31(목) 9~12시, 중국 진강 크라운플라자 H 회의장(2F)

○ (참석자) 정부, 발전공기업, 관련 연구기관 등 발전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
- (한) 에너지혁신정책관, 전력연구원장, 에기평원장 등
- (중) 국가에너지국 국장, 화전집단 부사장, 발전사 사장 등

○ (주관) 한전전력연구원·에너지기술평가원 - 중국 화전 집단*

* 중국 5대 국유 독자 발전기업 집단 중 하나로, 국무원이 관리·감독하는 대형 공기업

□ 이번 포럼에서는 △**친환경 발전기술**, △**미래 신발전 기술**, △**정보교류 플랫폼 구축**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.

○ **(친환경 발전기술)** 양국의 미세먼지 평가 기술 및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고, **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**을 논의

○ **(미래 신발전 기술)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**(IDPP: 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) 구축현황 및 향후 기술개발 계획을 공유하고,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발전소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

○ **(정보교류 플랫폼)** 발전기술 포럼을 양국의 **환경·에너지기술 정보교류 및 공동 R&D**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확대·발전시키기로 협의

< 2차 한-중 에너지협의회 >

□ 또한, 산업부는 2017년 **양국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설치***된 **한-중 에너지협의회(국장급 협력기구)**를 **두 번째로 개최**하였다고 밝힘

* 한중 정상회담 계기 산업부-中 국가에너지국 MOU 체결('17.12월), 에너지협력채널 신설 합의 및 1차 한-중 에너지협의회 개최('18.5월, 서울)

<에너지협의회 개요>

○ (일시·장소) 10.31(목), 14:30~17:50, 중국 진강 크라운프라자 호텔

○ (참석자) 한-중 정부 및 에너지기업·연구기관 등 20여명
- (한) 에너지혁신정책관(수석대표), 한전, 가스공사, H2Korea 등
- (중) 허양 국가에너지국 국장(수석대표), 국가전망, 해양석유총공사 등

□ 이번 2차 협의회에서는 **전력망, 천연가스, 재생에너지, 수소**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

○ **(전력망)** 한국전력과 중국의 국가전망*이 공동연구중인 **"한-중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타당성 조사" 진행상황을 점검**하고,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

* 中 88% 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(매출 기준 세계 1위 전력회사)

○ **(천연가스)** 세계 2·3위 LNG 수입국인 한·중이 협력하여 **글로벌 LNG 시장의 투명성·유동성을 제고**하고, 향후 양국 대표 가스기업(韓 가스공사 - 中 CNPC)간 **LNG SWAP 체결을 추진**

○ **(재생에너지)**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**양국 기업들이 중동 등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을 지원하고 상호협력을 강화**

○ **(수소)**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수소경제에 대한 정책을 공유하고, **수소 안전 기준 마련*, 수소 인프라 확대, 신기술 개발 등 협력 추진**

* 중국은 수소탱크(Type 4)에 700bar 기준이 없어 수소차 수출 애로

□ 양측은 **2020년** 한국에서 **제3차 한-중 에너지협의회** 및 **제2차 발전기술 공동포럼을 개최**하기로 합의하였음. 끝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신승일 사무관(☎ 044-203-5124) 또는 전력산업과 박환준 사무관(☎ 044-203-5154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